

제목: Exodus(출애굽기) -> 노예에서 벗어나 떠난다는 뜻이다, 즉 복제들이 떠나려고 한다는 것.

로그라인: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복제인간 경찰 식스. 처음으로 악몽을 멈춰준 약을 제조한 모세를 만나 안정을 잠시 동안 찾지만 모세가 불법 복제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녀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고통 받는다.

시놉시스: 도망친 복제인간을 수사하여 잡는 복제인간 경찰 식스. 매번 악몽과 불면으로 고통 받는다.

어느 날 한 의문의 약사에게 약을 받으며 잠깐이나마 악몽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약사는 사실 경찰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불법 복제인간 모세였다. 모세를 체포해야 하는 식스였지만 그녀의 순수한 모습과 악몽의 해방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식스는 모세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동료들을 죽이게 된다.

어쩔 수없이 모세와 떠나려는 식스였지만 모세 또한 식스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모세의 인조 인간을 해방하겠다는 목적의 한 단계로 식스는 그렇게 소비된다.

식스 (설정): 복제인간 경찰. 복제인간 2세대이다. 2세대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량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강한 신체와 빠른 판단력, 동체실력 전투 능력 등을 부여받고 또 아동기부터 훈련받았다.

많은 투자가 있었던 만큼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주기적인 세뇌와 악몽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 방치되어 성능은 좋으나 골치 아픈 취급을 받게 되었다.

식스 (성격): 어렸을 때부터 훈련과 세뇌로 시달렸기 때문에 현실에 찌들기만 했을 뿐 생각보다 순수한 면이 있다. 세뇌와 불안함 때문에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다. 불안함 에서도 자신의 신념인 '내가 도망가면 내 종족을 더 괴롭게 할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괴로움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세를 살려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모세 (설정): 가장 우월하고 많은 투자를 들인 식스의 유전자를 한 도망친 연구원이 체외 수정하여 태어난 복제와 일반인의 경계에 서있는 인물이다. 인간의 유전자가 절반이 섞여있기에 복제인간을 통제하는 악몽이나 세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오랫동안 복제인간의 신체, 정신을 연구하고 배웠기에 복제인간학에 매우 능통하다.

높은 지능과 실행능력이 장점이다. 복제인간들을 받아들이고 임무를 맡길 때에는 개개인의 고통과 힘듦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복제인간 전체의 혁명이 우선이다.

모세 (성격): 자신의 특별한 태생 때문에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찾지 못한 자신의 정체성을 성장하며 복제인간들을 구하는 선지자만이 자신의 정체성이라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차 없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선지자가 되어야겠다는 뒤틀린 욕망이 모세의 대의 보다 더 커진다면, 그리고 이미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되는 때는 어릴 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녀를 어떻게 괴롭힐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화연 (설정): 지쳐있는 복제인간 부서 일반인간 경찰이다. 빠른 눈치와 베테랑의 경험으로 식스가 그나마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인물이다. 크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타하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매마른 인물이다.

경찰학교에서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극한까지 몰리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는 그녀의 정신력 하나 만큼은 최고이다.

화연 (성격):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열정, 풍부한 감정, 분노, 슬픔은 혼란이라는 하나의 감정에 씻겨나가 버렸다.

복제인간을 처참하게 처단해보았고, 복제인간의 등장과 일으킨 사건으로 괴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둘 중 누구에게도 적대적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끔찍한 사태를 하루 빨리 마무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억지로 버티며 복제인간을 잡아들였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는 해방을 악착같이 바라는 복제인간들의 집념을 누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드러나는 느낌: 체제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더라도 결국 극한에서 자신을 위하게 된다. 그리고 개개인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공동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는 것을 막고 희생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역사적인 순간은 항상 개인에게 폭력적이다.

=> 결국 빠르게 발전하고 개인에게 잔인해져 가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빠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밀고나가는 것이다.